



## 09차시 다문화교육과 상담

### 1. 다문화 학생의 유형과 현황

#### 1) 교육부의 다문화 학생 유형 분류

교육부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를 가정생성배경에 따라 국제결혼 가정과 외국인가정으로 구분하고, 국제결혼가정은 자녀의 출생지에 따라 국내출생생과 중도입국으로 구분함.



- 국제결혼가정의 국내출생 학생- 한국인과 외국인 배우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이들은 국적법에 따라 국내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민이 되므로 헌법 제 31조에 따른 교육권을 보장받음(교육과학기술부, 2012).
- 국제결혼가정의 중도입국 학생- 한국인과 재혼한 외국인 배우자가 본국에서 데려온 자녀와 국제결혼가정자녀 중 외국인 부모의 본국에서 성장하다가 청소년기 중도에 입국한 자녀. 이들 가운데 외국 국적인 자녀들은 특별귀화를 통하여 한국 국적으로 전환할 수 있음.
- 외국인가정자녀-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로, 주로 외국인 근로자인

부모가 한국에서 결혼한 이후 출산한 자녀와 본국에서 결혼한 부모가 외국인 근로자 신분으로 한국에 이주하면서 함께 이주한 자녀. 이들은 헌법 제6조 제2항 및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한국 아동과 동일한 교육권을 가짐.

## 2) 다문화 학생 현황

다문화 학생 유형에 따른 학교급 별 현황을 살펴보면, 국내출생 다문화 학생은 초등학교에 50,193명, 중학교에 11,047명, 고등학교에 6,687명이 현재 재학 중. 중도입국 자녀의 경우 2015년 현재 총 6,259명의 학생이 학교에 재학 중. 외국인 가정 학생도 8,174명의 학생이 재학 중인 상황. 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학생의 도농별 재학 현황은 도시 지역의 학교에 53,886명의 다문화 학생이 재학하고 있으며, 농촌 지역 학교에 28,640명의 학생이 재학 중.

〈표 2〉 다문화 학생의 유형에 따른 학교급별 · 도농별 현황 (단위 : 명)

유형	학제계	초등	중등	고등	각종	계	도시	농촌
국내출생	68,099	50,191	11,054	6,688	166	68,099	41,898	26,201
중도입국	6,261	3,965	1,389	723	184	6,261	5,192	1,069
외국인가정	8,176	6,006	1,384	735	51	8,176	6,784	1,392
소계	82,536	60,162	13,827	8,146	401	82,536	53,874	28,662

※ 출처 : 교육부(2015). 2015 교육기본통계.

이처럼 일선 초·중·고교에서 다문화 학생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다문화 학생의 수를 처음 조사한 2006년(9,389명) 이래로 계속 증가하여 2015년도에는 82,536명의 다문화 학생이 전국 초중고교에 재학하고 있음.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의 학교 진입이 늘어나면서 이들을 원활하게 학교생활에 적응하게 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필요가 높아짐.

## 2. 다문화 상담의 이해

### 1) 다문화 학생 어려움 이해<sup>1)</sup>

#### (1) 국제결혼가정 :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의 경우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가 많아 가정에서 자녀에 대한

1) 교육과학기술부(2013). 다문화학생을 위한 교사용 매뉴얼

충분한 교육 지원이 미흡한 실정임.

가정생활 - 부부갈등, 한국어가 서툰 학부모, 그리고 인격적인 소통이 되지 않는 가정환경에서 언어발달지체, 문화부적응이 발생하기도 함. 하지만 가정의 경제수준, 부모의 교육에 대한 관심 등 가정 상황에 따라 한국어 및 외국어 구사 수준이 다양함. 대체로 중국·일본 출신 부모는 모국어를 가르치나, 동남아시아 부모는 자녀가 모국어를 배우는 것에 부정적인 경향이 있음.

학교생활 - 한국에서 태어나고 성장하여 대체로 학교에 잘 적응하고 한국인이라는 정서를 갖고 있으나, 일부 학생은 외모나 한국어 미숙 등의 이유로 따돌림 등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교우관계 -저학년의 경우는 언어와 외모의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으나, 고학년의 경우 친구들이 의식적으로 배려하기도 함. 외모에서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 다문화학생임을 밝히지 않고 생활하는 경우가 있음. 이 경우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남과 다른 자신의 정체성에대한 불안감이 잠재되어 있음.

## (2) 국제결혼가정: 중도입국

최근에는 외국에서 출생하여 성장하다가 부모의 재혼이나 취업 등으로 인하여 부모를 따라 한국으로 ‘중도입국’하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음.

가정생활 - 가정문제로 인해 정서적으로 힘들어 함. 어머니가 한국인 의붓아버지와 재혼하여 생긴 동생과 같이 지내야 하거나 자신과는 아버지, 어머니가 모두 다른 형제들과 함께 살아야 하는 경우와 같이 복잡한 가족관계와 또 원활하지 않은 의사소통으로 힘들어 하기도 함.

학교생활 - 외국에서 태어나 외국어에 능숙하나 한국어에 미숙하여 공교육 진입에 어려움을 겪으며, 학교 밖에 방치되는 교육공백이 발생하기도 함. 학교에 편입학 하더라도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적응에 어려움을 겪음. 자기 나이에 비해 2~3학년 낮춰 입학하여 또래들 보다 나이가 많기도하고, 기초학력 부진과 학교 부적응으로 학업 중단 위기에 처하기도 함.

따라서 이들이 언어·문화적 격차를 해소하고 우리나라의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심한 맞춤형 교육지원이 절실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이 가지는 언어·문화적 자원을 강점으로 살릴 수 있도록 관심과 교육적 지원이 필요함.

### (3) 외국인가정

외국인 가정의 유형은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재외동포 등 다양함.

가정생활 - 외국인 근로자 가정의 경우 대체로 소득 수준이 낮고, 학부모의 한국어 수준이 낮아 자녀를 위한 교육지원(입학, 상급학교진학, 학습지도 등)이 미흡함. 부모 모두 외국인으로서 언젠가 본국에 돌아갈 것이 기정사실임. 언제 본국으로 돌아갈지 모를 불안정한 생활로 인해 불안해하는 학생도 있으며, 본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생활이 힘들 수 있음. 자주 사용하지 않아 잘 모르는 본국의 언어, 낯선 환경 그리고 문화충돌 등이 예상되기 때문임.

학교생활 - 대부분의 외국인 가정은 집에서 자신들의 모국어로 대화하기에 모국어에 능숙하지만, 한국어는 미숙하기 때문에 국어·사회 등 한국어 관련과목에 취약함. 한국어미숙(발음놀림), 외모(피부색놀림), 국적(자기 나라로 돌아가라고 협박)등 으로 인해 차별을 경험 하는 사례가 있음.

한국에서 계속 살 것도 아니라는 생각에 한국의 공부나 생활에 적극적으로 몰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늘 경계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경우도 있음. 부모의 결정은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지만 자신은 한국 생활에 익숙해지고 정이 들어서 가고 싶지 않을 경우에 부모와의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도 있음.

## 2) 다문화 학생의 문제행동별 상담전략<sup>2)</sup>

### (1) 학습부진

#### ① 기초학습능력 증진에 대한 동기 부여

공부를 왜 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진로와 연결하여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그렇게 되기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스스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여러 차례에 걸쳐 이야기 나눠보는 것이 필요함. 공부에 관심이 생기고 공부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다면 조금만 노력해도 성취 가능한 작은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여 최대한 성공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② 객관적인 평가를 통한 학생의 능력 정확한 진단

학생의 현재 학년에 상관없이 출발점이 어디인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지점에서부터 보충학습을 실시해야 함. 기초학습능력 부진 지도를 위한 다양한

2) 황매향, 고흥월(2009). 초등교사를 위한 다문화상담 길잡이 / 장인실 외(2012), 다문화교육의 이해와 실천

프로그램과 교재를 활용하여 부족한 기초학습능력을 보완해 줄 수 있음.

### ③ 학습준비 조력

다문화가정의 학부모는 취약계층에 속해 있는 경우가 많아 부모가 학생들의 학업을 조력할 시간적 여유도 없고 자녀의 학교 숙제나 학습준비물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음. 다문화학생들이 숙제를 제대로 해 오지 않거나 준비물을 챙겨오지 않으면 수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것이 누적될 경우 학습부진으로 이어짐. 따라서 교사가 필요한 사항 한 가지씩 학생과 협의하여 정하고, 습관이 될 때까지 계속 점검하고 칭찬해주어 학습준비의 중요성을 알게 한다면 수업시간 집중도와 성취도가 향상될 수 있음.

## (2) 대인관계 부적응

### ① 또래관계: 한국어 습득, 대인관계 기술 향상,

놀이문화를 비롯한 문화 차이 적응

다문화가정의 학생은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대인관계에서 소극적이고 의사소통 및 감정교환이 어려워 교우관계를 친밀하게 형성하지 못함. 문화의 차이로 자신만이 알고 있는 규칙을 적용하려고 해서 아이들과 다투는 경우도 생김. 따라서 교사는 따로 다문화 학생 한 명을 가르치기보다는 또래 다문화 학생들을 함께 교육해 주는 프로그램을 찾아주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학습한 내용을 실천하도록 격려하는 역할을 해주면 효과가 더욱 클 수 있음. 또래관계에서 다툼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가능한 한 따로 만나 각자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주고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탐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음.

### ② 교사와의 관계: 교사 스스로의 편견과 차별 점검, 구체적인 지침

다문화 학생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은 자신이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기 때문에 교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표현되어 편견을 가지고 차별대우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큼. 따라서 무의식적으로 표현되는 편견이나 차별에 대한 부분을 점검하고 다문화 학생의 다른 점을 수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 또한 다문화 학생이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지침을 주는 것이 효과적임. 학생의 행동에 대해 평가하고 비평하는 대화방식인 너-전달법(우리 반에서 지각하는 아이는 너밖에 없어)으로 상처를 주기보다, 학생의 행동에 대한 교사의 감정을 기술하는 나-전달법(학교에 제시 시간에 오지 않아 선생님은 걱정이 많이 되는구나)으로 솔직하게 드러낼 때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음.

### (3) 정체성 혼란: 종합적 이해와 수용

다문화 가정의 아동은 눈에 띄는 외모로 타인의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는 경우가 많고, 아직 정체감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기 이전인 어린 시절부터 다양한 문화적 환경에 노출되어 심한 혼란을 느낌. 그래서 자신의 문화적 배경을 감추려고 하기도 하고, 지나치게 자신의 문화나 한국의 문화를 비판하고 거부하기도 하며, 자신이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생각도 하게 함

다르다와 틀리다의 개념을 구별하여 다른 것을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함. 특히 장점을 찾아 적극적으로 칭찬해주어 긍정적인 수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함.

## 3. 다문화상담의 실제<sup>3)</sup>

### (1) 학습 부진 사례

학생들 마다 개인차가 있으나, 국내출생 및 중도입국한 다문화가정 학생들은 기초학습능력(3R's)과 교과학습부진을 겪는 경우가 있음.

국내출생 다문화 가정 학생들은 언어 형성기의 적절한 언어투입의 부족, 가정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생활한국어는 능숙하나 학습한국어가 부족한 경우가 있음. 중도입국학생들은 한국어능력 부족, 본국의 교육과정과의 괴리, 가정, 학교생활의 차이점 등으로 인해 학습 부진을 겪는 경우가 많음.

국내에서 출생한 김○○ 학생(필리핀)은 초기 언어형성기의 적절한 언어투입의 부족과 학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인해 기초기본학습능력 동학년 친구들에 비해 현저히 떨어졌다. 발표를 잘하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였으나, 평가를 보면 학습부진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학습부진영역을 체크하고 방과후 또는 주말을 활용하여 담임교사, 대학생 멘토링을 전개하였다.

### (2) 학교, 가정생활 적응 사례

대부분의 중도 입국한 학생들은 어머니의 재혼으로 인해 한국으로 들어온 경우가 많음. 갑작스럽게 한국에 들어와 새로운 아버지, 동생, 친척들을 만나서부터 정서적으로 혼란을 겪게 됨.

3) 윤제림(2016), 진로진학상담교사 및 전문상담교사 다문화교육 직무연수, 교육부

태국에서 중도 입국한 김○ 학생은 고향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에 대한 그리움, 믿었던 어머니의 배신,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던 어머니에 대한 신뢰 부족, 새로운 아버지, 이복동생과의 불편한 관계 등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심리, 정서적 고통을 겪고 있었음.

우선, 학교생활이 재밌게 하여 가정에서 치유 받지 못한 마음을 달랠 수 있도록 하였고, 가정과 연계하여 어머니를 중심으로 다른 가족들과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언어가 통하는 조력자(태국어 이중언어강사 등)을 활용함.

### (3) 이슬람학생(종교) 사례

최근 시리아 내전으로 인하여 난민자격으로 들어오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학생들의 지속적인 학교 유입으로 문화적 차이로 인한 다양한 갈등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음.

시리아에서 2016년도에 중도 입국한 바○ 학생은 무슬림 학생으로 선생님께 목례를 하지 못함. 선생님을 비롯한 어른들은 신이 아니기 때문임. 그래서 반 학생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지 의견을 물었더니 목례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이해하며, 다른 방식으로 인사를 하는 것으로 제안함. 목례를 하지 않는 대신 큰 소리로 웃으면서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하자고 함.

이슬람력의 아홉 번째 달로 라마단 기간에는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음. 무슬림 학생 중 일부도 라마단 기간에 학교 급식을 먹지 않으며, 이슬람 규율을 따르고 있었는데 부족한 수면으로 교실에서는 수업 중에 졸고, 축 쳐져 학습 의욕이 저하되는 부작용이 따르지만 아이들은 나름 자신의 문화와 규율을 지키려 노력하는 모습으로 생각하여 존중해 줌.